

'익산형 경제지원' 속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률 80.6%, 시민 생활 안정 도모 특수형태 근로자 지원사업 1천여명 신청 큰 호응

익산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각종 경제지원 대책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시는 최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익산형 경제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지난 8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이 7일 기준 23만여 명에게 230억원이 지급됐으며 80.6%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되는 한시 생활지원금은 전체 대상자 1만5,800여 가구 가운데 1만여가구가 이들에 대해 약 67억원이 지급됐으며 지급률은 약 69%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

자리를 잃은 비정규직과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생계비 지원사업에는 전체 사업 대상자 1천420명 가운데 지난달까지 1천여명이 신청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시는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기준을 완화해 예산이 소진될 시까지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단기 일자리 사업도 대상자 80명을 선발해 지난 4월부터 업무에 돌입했으며 대상자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근무하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9,346곳의 업체가 신청했으며 69%의

집행률을 보이며 속도를 내고 있다. 카드수수료의 경우 신청된 6,600건 가운데 5,460건이 지급됐으며 8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인건비도 모두 선지급됐다. 지난 3월에는 6개 사업 참여자 7,543명에 대해 22억1,200만원, 4월에는 11개 사업, 347명을 대상으로 1억6,600만원이 최종 지급됐다. 지원 대상자는 노인일자 리사업 참여자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성인문해교육 교사 38명, 시립도서관 프로그램 강사 등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과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각종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국면을 대비하고 지역 경제가 빠른시일 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는 지난 8~9일 웨스턴리조트 호텔에서 남궁근 철도정책포럼위원장(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을 비롯한 20여명의 전문가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철도정책포럼 워크숍을 개최했다.

익산역 발전 방안 머리맡대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워크숍

익산시는 지난 8~9일 이틀간 웨스턴리조트호텔에서 남궁근 철도정책포럼위원장(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을 비롯한 20여명의 전문가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철도정책포럼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포럼 위원들 간 소통을 위한 자리로, 철도교통의 요충지이자 시의 주요 구심점 중 하나인 KTX 익산역의 발전가능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현재 추진 중인 철도사업의 방향을 다잡기 위하여 마련됐다.

남궁근 포럼위원장은 2019년 철도정책포럼 정기회의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포럼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활발한 분과 활동을 위해 각 분과를 이끌어 나갈 분과위원장 4인을 추천을 통해 선출했다.

이어서 현재 추진 중인 철도사업(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익산역) 선정 사업,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산단 산업선 건설사업 등)에 대한 설명도 함께 했다.

철도사업의 경우 상위 국가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사업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에, 이를 분과별 공통주제로 선정하여 사업 계획 반영 경험 및 노하우 등을 공유하였으며, 각 분과별 안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전국의 내로라 하는 철도·교통 전문가들이 익산시 철도정책포럼으로 한자리에 모인 만큼 전문가 시각에서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활발한 분과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시의 철도사업 발전에 함께 힘써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정책포럼 위원은 철도계획, 철도 건설 및 공학, 철도환승, 물류 및 유라시아의 4개 분야 27명으로 전국 의 철도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골목상권 살리는 따뜻한 소비 하세요"

지역화폐 등 지역 내 사용 유도

익산시가 지역화폐 '다이로움'을 내 주변 소상공인 업체에서 우선 사용하는 '따뜻한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한다. 지난 8일 익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불황을 이겨낼 마중물로 평가받는 지역화폐 '다이로움'이 주목받고 있다.

시는 '다이로움'을 내 주변 소상공인 업체에 사용하는 '따뜻한 소비촉진 운동'을 추진해 다양한 혜택이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다이로움'은 출시된 지 110여일 만에 가입자 5만여명을 돌파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발행액도 올해

계획된 100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32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1일페이백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가입자가 3.5배 증가했고 결제액도 4.4배 증가했다.

익산시가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285억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00억원까지 지급이 완료되면 최대 1천억원 규모가 지역 내에서 소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민들이 사용하는 '다이로움'이나 기프트카드가 대형마트나 기업형 프랜차이즈,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제한되면서 준대형 마트로 이용객이 몰려 동네 상권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화폐와 각종 지원금이 얼어붙은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따뜻한 소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우선 공무원들이 따뜻한 소비에 앞장서 5월 중 전 직원 전통시장 장보기를 실시한다. 국·소·단별 직원 자체 결연 전통시장에서 '다이로움', 재난 기본소득 기프트카드, 은누리상품권 등을 이용하여 참채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을 계획이다. 또한 내 주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 이웃 점포 이용하기' 운동과 캠페인을 펼쳐 지역 내 소규모 점포에서 지원금이 골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익산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비 운동을 지원하는 가격 인상행위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상담센터와 함께 강력히 제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가격인상점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적발 시에는 다이로움 가맹점 제외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올바른 자녀양육태도 · 기술 가르쳐 드려요"

군산시 부모학교 개강

군산시가 올바른 자녀양육 태도와 기술을 배우는 부모학교를 개강하며 학부모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부모교육 7시간, 아동행복 70년'을 목표로 5월부터 2020년 군산시 부모학교'를 개강한다고 밝혔다.

부모학교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조별 교수의 감정코칭 기본교육, 심리치료 전문가와 함께하는 실습교육 중

심으로 부모 스스로 감정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며 올바른 자녀양육태도와 기술을 배우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감정코칭교육 수료자를 중심으로 힐링 토크쇼, 회복탄력성 교육,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숲·놀이체험, 부부연수, 자부심(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상담) 등 지속 가능한 연계교육 형태로 11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실습 및 체험중심으로 이뤄지는 부모학교는 군산시가 후원하고 시야동



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공동 협의하고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김재훈 기자

익산 신동지구대, 보이싱 피싱 예방 홍보 주력

익산경찰서(서장 임성재) 신동지구대는 주민중심 정성치안 범죄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관내 주민과 금융기관을 방문 맞춤형 보이싱피싱 예방 홍보 활동을 내실 있게 펼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친 삶을 이어나가는 주민들의 마음을 이용해 접근하는 각종 전화 등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현장 최일선 신동지구대 직원들이 발 벗고 나섰다. 관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타 시도 사례로, 최근 A씨는 전화 통화를 통해 접근한 보이싱 피싱 사기 용의자에게 적지 않은 현금을 도둑맞았다.

북관 현장에서 건넌 뒤에야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뒤늦게 수사기관에 도움 요청을 한 사례가 발생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관내 금융기관을 비롯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근 수법과 피해방지 요령들을 주민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쉬운 용어로 반복 전파 생활 속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창구 직원들에게 액수가 다소 큰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구인을 비롯 경찰관서 등에 물어보고 일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